

# “도전과 성취의 인술실천 반세기”

## 심장센터, ‘美성형’ 등 전문센터 중심 진료시스템 구축

# 가천의대 길병원



(원내는 이길여 회장)

‘박애·봉사·애국’을 이념으로 한 가천의대 길병원의 역사는 「의료봉사 실천의 반세기 旅程」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개원이래 오직 생명존중에 대한 경외심(敬畏心)으로 참의술을 실현하며 달려오고 있다.

58년 인천 중구 용동에서 자성의원이란 작은 산부인과 의원으로 출범, 98년 가천의대부속길병원으로 발돋움할 때까지 의료봉사와 인재양성이란 쉽없는 수레바퀴를 굴러온 길병원은 이제 21세기 한국의료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을 위해 부단히 정진

하고 있다.

경기, 강원지역 의료취약지역 등에 7개 병원과 5개 전문의료센터, 산업의학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소 등 4개 의학연구소를 갖춘 국내 굴지의 종합의료기관으로 성장한 길병원은 지난해 교육·문화·의료·언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 綜合公益財團인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으로 재탄생, 인술봉사를 통한 사랑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가  
천  
의  
대  
길  
병  
원

### 가천길재단으로 새롭게 출범

3월 25일로 개원 45주년을 맞는 가천의대 길병원은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들의 얼굴에 희망의 햇살을 활짝 드리운다'는 신념으로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만들며 참인술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현재 본원인 가천의대 길병원을 비롯 동인천길병원, 남동길병원, 양평길병원, 철원길병원 등 자병원들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소속돼 있다.

가천의대 길병원은 소화기센터, 뇌신경센터 등이 위치한 본관을 비롯해 심장센터, 치과센터, 안·이비인후센터, 모자병원, 인천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독립화된 전문의료센터를 갖췄다.

연구와 진료를 위한 종합공간인 아카데미센터가 신축중이며 이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1,440병상, 산하병원 포함 총병상수 2,500)보다 500병상 정도가 증설된다.

가  
천  
의  
대  
길  
병  
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은 설립 이래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

며, 지난해에는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사단법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사회복지법인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학교법인 가천학원, 경원학원, 경인일보사 등의 재단 구성원을 아울러 '가천길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경원대부속 서울한방병원과 경원인천한방병원도 한 가족이 되었다.



### 심장센터 등 독립 전문의료센터 중심 의료시스템

가천의대 길병원의 특징은 80년대 초반부터 독립된 전문의료센터 체제를 구축해 왔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출발해 종합병원(舊 동인천길병원)으로, 그리고 다시 치료와 예방을 함께 추구하는 대학병원으로 발전해 온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심장센터, 모자(母子)병원, 안·이비인후센터, 응급의료센터, 미(美)성형센터 등 전문의료센터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다.

심장센터는 수준 높은 의료진의 명성과

함께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펼치고 있는 심장병무료검진 활동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모자병원 역시 개원 이래 자궁암 무료검진을 통해 부인암 관련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한 선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병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료협력센터(GRC)를 운영하고 119구조대원을 비롯해 의사, 간호사,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응급 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국내최고수준의 응급의료센터

특히 99년 12월 인천을 비롯한 경기 충남 등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 태어난 인천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신속하고 첨단화된 응급의료시스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인천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전문가 상주하며 독극물팀, 뇌혈관팀, 외상팀, 소아응급팀, 심폐소생팀 등의 세분화된 진료팀을 구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PACS, 원격화상진료시스템(Telemedicine), 가장 짧은 공간 이동과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현하기 위한 'Short & Fast Track System' 등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

### 미(美)성형센터-미용·기능 모두 감안한 건강성형 추구

그동안 미용성형으로만 인식돼 왔던 성형분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미성형'이란 개념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미(美)성형센터'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를 '아름다움과 기능을 겸비한 건강 성형'의 개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성형센터는 이를 위해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구강안면외과 등 부문별 전문가가 모여 코디네이터를 통해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환자의 신체적인 조

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성형센터는 수술 당시에는 만족했을지라도 후유증 때문에 결국 외모는 물론 심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추는 새로운 차원의 성형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모토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 통합의학센터 등

이밖에 '통합의학센터'는 유럽의 자연의학과 동종요법 등 현대의학과 함께 질병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보완·대체의학을 통해 여성갱년기질환, 공황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 치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센터의 대체·보완요법은 동·식물과 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을 정선된 처리과정을 거친 후 치료에 사용하며, 이 성분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것들이다. 또한 질환의 진단은 현대의학의 전통적 방법에 따라 의사가 하게 되며 그 치료 역시 의사가 맡는

다는 점에서 기존 동양의학과도 차별성을 띠고 있다.



### 환자 중심 첨단병원

가천의대 길병원은 올 상반기 중에 '종이없는 병원'(paperless hospital)을 실현한다. 91년 '병원전산화 시스템'(CALS)을 한 발 앞서 구축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 원격화상진료시스템(telemedicine) 등을 차례로 완비한 것이 그 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길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길병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은 물론 진료와 건강강좌 일정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했으며(문자 메시지 송신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며 진료 일정 뿐 아니라 건강강좌 일정 등 정보도 함께 제공), 3차원 촬영 기기를 갖춘 혈관조영촬영실을 개설하고 전문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선진 의료기기를 확충하는 등 환자를 위한 병원 첨단화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윤정철 병원장은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곳인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봉사하는 병원

가천의대 길병원은 58년 당시부터 ‘보증금 없는 병원’을 표방하며 환자를 위해 병원 문턱을 혁신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무료진료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자병원을 중심으로 44년째 펼쳐지고 있는 ‘자궁암 무료검진’이다. 지역 제한 없이 여성이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본원과 자병원 모두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내 정상급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심장센터는 국경 없는 인술을 실천하고 있다. 길병원 무료검진팀과 함께 전문의료진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심장병 무료검진 사

업을 펼치고 있고, 국내 청소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도 심장병 무료검진과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92년 길병원이 시민운동차원에서 발족시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는 2001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제출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다.



### 연구와 임상 이 조화를 이룬 선진 병원

가천의과대학교는 2004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에 따라 가천의대 길병원은 패기와 의욕이 넘치는 젊은 의료진이 내년부터 꾸준히 배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상과 연구, 병원과 의과대학이 조화를 이루며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3년 3월부터는 가천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2005년부터 원생모집)되고, 가천의대에는 기존의 의예과와 의학과 대신 생명과학부가 신설됨으로써(올 첫 신입생 모집에 미래 첨단과학인 생명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98대1의 경쟁률 기록)보

다 전문화되고 실력과 철학을 겸비한 의료진 양성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TERVIEW



윤정철 병원장

### 전문분야별 특화전략에 대하여

병원 설립 운영 초기부터 전문분야별 특화전략을 구사한 것이 의료계 및 수혜자인 환자에게 어필하여 길병원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게된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모자병원을 비롯 심장센터 안이비인후센터 뇌신경센터 등 센터중심으로 묶어 활성화 한 것이 주효한 셈이지요. 특히 응급의료센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으로 평가받아 복지부나 다른 병원에서 견학을 위해 찾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적측면만 강조한 성형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므로 환자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과 및 분야별로 잘 협조함으로써 기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진료시스템 요청에 부응하여 美成形센터를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전산화 현황 및 계획은

전산화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PACS는 2년전에 도입되어 Full 가동중이며 EMR이 적용되는 3월경부터는 명실공히 차트없는(paperless) 병원이 될 것입니다.(2003년도 인턴모집에 20여개 의대에서 지원했는데 PACS 등 전산프로그램이 완벽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 가천의대 길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우선 ‘환자중심의 병원’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가천문화재단을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전체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우리의 전통 차(茶)예절 교육을 실시해 정서함양과 자기수양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곧 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정신으로 연결됩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부터 모든 임직원들이 ‘일일 친절도우미’로 나서 환자 및 보호자들과 외래 접수 창구 등 현장에서 1대 1로 만나 애로사항이나 불편을 해결해 줌으로써 환자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는 병원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임새 있는 병원 운영과 인적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알차고 효율적 시스템(compact size)은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 병원 경영방침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의료환경과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갈 방안은 무엇보다 ‘환자중심 병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자를 내몸같이 돌본다’를 철칙으로 삼고있으며 이를 실천하도록 병원가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모여 근무하는 곳으로 전직원이 한가족처럼 지내는 화합분위기가 바탕이되지 않으면 잘될 수 없습니다. 신바람나는 직장으로 만드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데 직원들이 잘따라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정책 관련 바램은?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우선 대형병원의 환자는 늘지 모르지만 환자집중에 대하여 진료스텝을 비롯한 맨파워(의료인력)가 커버되지 않아 의료기관 규모별은 물론 병원과 환자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양질의 의료시혜에 큰 장애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중소병원이나 대형병원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과제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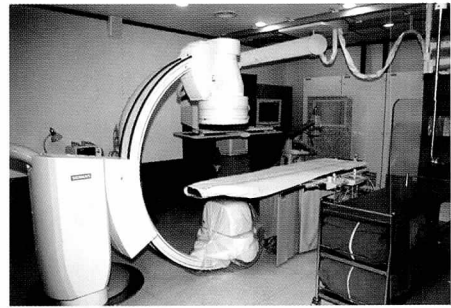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협진체제 강화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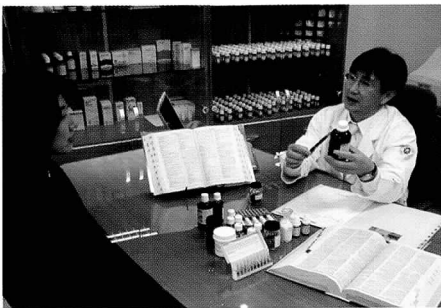
대형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진체제 강화가 긴요하다는 판단아래 현재까지 인천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30여군데 의료기관과 협력병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명목뿐인 협력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보내고 받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서해안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으로 아카데미 빌딩을 신축중이며 이 센터가 완공되면 진료는 물론이고 연구역량도 배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함께 노령인구 증가에 맞춘 뇌 신경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PET, 감마나이프 등도 도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3



취재 : 홍보팀 전양근



병원 발전 청사진은

현재의 응급진료센터 옆에 쌍둥이 빌딩

